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

목차

식 순	05
인 사 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09
	참여연대	1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1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13
축 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14
발족선언문	15

”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 일 시 : 2019.12.10(화) 10: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306호

사회 : 한상총련 이동주 상임부회장

시 간	순 서	
10:00~10:05	개회	
10:06~10:20	축사	
10:21~10:25	99% 상생연대 출범 영상	
10:26~10:45	주최 단체 대표 발언 :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나다순)	
10:46~10:50	불공정 사례발표	한상총련 홍춘호 정책본부장
10:51~10:55		금속노련 정책본부
10:56~11:00	99% 상생연대 발족선언문 낭독	
11:01~11:03	포토 타임	
11:14~11:15	폐회 및 장내 정리	

인사말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의 발족을 축하드립니다.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족을 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재벌개혁’을 외쳤던 촛불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지만, 정부 정책은 재벌 규제완화로 선회했으며 견제해야 할 국회 역시 관련 친재벌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기조를 이행하고 있다지만, 사실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고, 노동시장과 민생경제 역시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여전히 집중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세습과 사익추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및 단가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투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혁신기업들의 시장 진입은 가로막히고,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까지 심화시켜, 노동자들과 중소서민상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가져오는 고용 없는 성장과 중소기업과의 격차심화는 청년실업과 조기퇴직, 자영업의 몰락, 노인 빈곤이라는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GDP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우리 제조업은 중소기업들의 단가를 후려쳐서 해오던 가격경쟁방식이 신흥국에 의해 무너짐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등을 도입해 기술탈취 방지를 통한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벌대기업과 물적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인적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대·중소임금격차도 줄어들며, 제조업에서의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99%상생연대’는 재벌과의 정경유착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맡겨 둘 경우, 결코 개혁이 되지 않음을 경험에서 알고 있습니다. 시민, 노동자, 소비자, 중소기업, 나아가 유권자들이 직접 나서서 정책을 제안하고, 이행여부를 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질책함으로써 우리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선두에 ‘99% 상생연대’가 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사말

백주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는 경제전반과 산업측면의 양극화를 확산하고, 대중소기업 사이 불공정거래를 증대하며, 중소·골목상권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경제부문에서 재벌과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장악,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 대리점과 가맹점 거래에서 나타나는 갑질과 불공정행위, 하도급 불공정거래 등 고질적 문제는 해소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20대 국회는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재벌개혁의 문제는 몇몇 구호를 외치거나 일부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식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각 민생부문 사업 종사자는 물론 노동자와 소비자를 아우르는, 한마디로 우리의 일상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거대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감시와 견제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현재로서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시대정신은 ‘공정’을 요구하고 있고 재벌개혁은 공정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99% 상생연대’는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희망을 화두로 현 상황을 엄밀히 진단하고 평가하여 향후 우리사회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주요 개혁과제를 한 곳에 모아 21대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각 개혁과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서민금융과 주거권 문제, 각종 불공정문제와 조세 재정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당사자들과 호흡하며 전문가집단으로 최선을 다해온 결과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99% 상생연대 발족식을 통해 민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앞으로의 활동이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희망의 새로운 준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갑질·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의 연대와 시민들의 지지, 국회의 노력 등이 더해지면서 ‘갑질’과 ‘불공정’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졌고 상당한 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비용은 줄이고 위험은 전가하기 위한 하청에 하청, 위탁에 위탁, 고용에 고용이 이어지면서 불공정 문제는 ‘갑을’관계를 넘어 ‘갑을병정’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양극화 구조는 보다 복잡하고 교묘하게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과 최저임금노동자를 싸움 붙이고, 무분별한 투기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서도 정작 재벌대기업과 1% 자산가들은 이러한 논의에서 한발 물러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공정, 양극화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상위 1%인 ‘갑’에 대항하는 99%의 ‘을병정’연대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재벌대기업이 영세한 하청업체, 유통업체의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해 책임성을 높이고, 상위 1%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법,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오늘 새로이 시작하는 99%의 상생연대가 그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도 99%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여기 모인 노동자, 중소기업,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건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상생정신에 기초한 99%의 연대로 경제민주화 실현,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어린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동존중 사회실현과 경제민주화를 희망하고 있는 우리는 참담한 정치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등의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유예되거나 퇴보되고 있습니다.

유통법과 주임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은 상정이 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한을 남용하고 의무를 잊방기하는 정치 현실로 인해, 99%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불신과 불안의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 이고, 촛불의 염원이었던 ‘공정한 사회’는 빛바랜 꿈인 듯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다시금 상생에 기초한 폭넓은 연대와 실천을 요구합니다. 분명 노동자, 중소기업, 소시민 모두 각각 해결해야 할 사안과 의제가 존재합니다. 노동자 역시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조하기 좋은 세상, 노동조건 개악 저지, 임금 격차 해소, 디지털 전환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 수많은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시민진영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각자의 의제를 관통하는 근본적 문제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소수 재벌에 의해 독점된 한국 경제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벌기업의 황제경영, 세습 문제가 나라의 경제를 쪼먹고 있고, 그들이 견고하게 쌓아놓은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점차 불안전하고 불공정하게 바뀌고 있고, 다수의 국민은 저소득의 굴레 아래 자신의 미래조차 계획하지 못합니다. 결국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실현하느냐의 문제는 노동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3년 전 전국 광장의 촛불을 통해, 우리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자본을 통해 수많은 정치권력과 언론을 움직이는 재벌의 힘을 간과한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으로 각자의 의제에 몰두하고 있었던 그 3년 동안, 재벌은 과거의 위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벌 총수의 ‘투자’를 위해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을, 이제 와서 다시 듣게 되는 기막힌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다시,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이윤보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의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재벌개혁과 하도급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건강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성장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의 갑질에 징벌적 처벌로 못을 박아야 합니다.

양극화해소를 위한 공동의 연대와 실천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빈곤의 악순환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노인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소득 보장, 사회적 복지 시스템을 확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생에 기초한 연대와 실천을 앞세웁시다. 99%에 속한 우리가 서로의 이견과 차이로 갈등하고 반목할 때, 1%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우리사회의 근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대와 실천을 도모할 때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99% 상생 연대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99%의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노동자부터 앞장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흔히들 대한민국은 1%의 재벌 대기업들이 기회와 자본을 독점한 사회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재벌대기업들은 기술혁신과 상생보다는 내부거래와 전속거래, 세습 등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기술탈취와 단가후려치기 등을 통해 99%의 사회적 약자들의 재산권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통해 가맹, 대리점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결정에도 영향을 끼치며 우리 사회를 을과 병의 투쟁의 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며 경제 및 산업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1%의 재벌대기업에게 편중된 사회에 미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유일한 대안은 99%의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를 통한 사회구조의 변혁뿐입니다. 99% 상생연대는 그간 끊임없는 논의와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노총과 한상총련은 단순히 최저임금의 인상을 찬반의 논리로 반목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99%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논의들을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로 노동자들이 먼저 앞장서 제로페이 사용 등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현실적인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의 시민사회는 불평등, 불공정, 양극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가 닳을 올리고 정식으로 출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족의 결실을 맺기 위해 함께 고생하신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의 동지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한상총련도 99%의 일원으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문득 어느 영화 속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판 뒤집어졌다!” 재벌 대기업들의 판을 뒤집기 위해 이제 우리99%가 뭉칠 것입니다.

축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발족식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YMCA,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구 5천만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는 ‘30-50클럽’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격차사회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특히 소득격차는 부의 대물림으로 변질돼 교육과 일자리 등 사회 통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 간 격차 역시 심화돼 갑을관계, 비정규직, 원하청 불공정거래, 불법파견 등 공정경제가 저해되고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는지, 얼마나 중소 뿌리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토대를 이룰 경제적 자립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경제를 확립하는 근본적 체질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함께 창출한 가치를 함께 누리는 포용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묵은 낙수효과 이론으로 소수가 모든 것을 독점해왔던 현실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속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을 밀어내고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를 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99%의 사람들이 너와 나에서 우리로 연대하여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에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족선언문

노동자, 중소기업·자영업자, 시민사회가 함께 '99%의 상생연대'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바야흐로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의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를 비판해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려 산업재해의 희생양이 된 노동자들의 사연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사회, 재벌들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 불공정행위가 일상이 되고 부동산 투기가 '기회'가 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경제력 집중현상은 교육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거치면서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인간 소외로 이어져 우리와 우리 이웃의 일상을 조금씩 파괴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있었던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 경제가 그동안 얼마나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는지,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속거래와 독과점 구조가 우리 경제의 '뿌리와 줄기'라고 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약화시켜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재벌대기업의 온라인 유통망은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1%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99% 대다수 서민·중산층과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낮아지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웠으나 최근 규제완화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의 회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입니다. 각 경제주체가 배제되거나 소외 받지 않는 공정하고 평등한 경제체제를 통해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구조를 탈피하고, 적극적인 평등화 조치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서 재벌대기업, 1% 부유층만을 위한 사회가 아닌 99%의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소외받는 '99%의 상생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보다 많은 노동자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시민들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99%의 노동자, 중소기업·자영업자, 시민들의 소득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갑질·불공정 관행과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의 개선을 위해 실천적인 협업과 연대를 모색하겠습니다.

2019. 12. 1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